

다케마이리

야쿠시마 섬 주민들에게는 마을에 따라 봄이나 가을, 혹은 두 계절 모두에 신성한 산들을 순례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다케마이리’라고 하는 이 연례 관습은 500 년 전쯤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대표자는 부처의 화신인 산신 잇폰호주다이곤겐에게 오곡의 풍작, 풍어, 가내 안전을 기원합니다. 각 마을에는 독자적인 순례 의식과 경로가 있습니다. 이 의식과 경로는 보통 바깥쪽 산들인 마에다케 가운데 한 산에 오른 뒤, 내륙에 있는 오쿠다케보다 높은 봉우리인 미야노우라다케 산, 나가타다케 산, 구리오다케 산 가운데 하나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몇몇 마을에서는 경로를 간략화하여 마에다케만 오르고 있습니다.

기원

1480 년대 후반, 야쿠시마 섬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시기에 불교의 한 종파인 니치렌종의 승려였던 니치조 쇼닌이 나가타다케 산의 바위굴에서 7 일간 지내며 법화경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러자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 신토(일본 고유의 전통적인 신앙)의 신인 히코호호데미노미코토(별명: 야마사치히코)는 잇폰호주다이곤겐의 화신으로 숭배를 받아 다케마이리 경로 곳곳에 있는 제단과 비석에 후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케마이리에서는 신토와 불교 양쪽의 신들이 숭상되며, 6 세기 중반에 중국에서 불교가 일본에 전해진 뒤에 불교와 융합해 숭배된 신불습합(神佛習合)의 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순례

이전에 다케마이리는 숙박을 해야 하는 의식이었지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의 인구가 많이 줄고, 고령화 등의 영향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축소되어 당일에 돌아오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야쿠시마 섬의 24 개 마을 가운데 20 개 마을에서는 지금도 다케마이리 의식이 열리고 있으며, 이 행사에 선발되어 참가하는 것은 마을 사람에게 명예로운 일로 생각됩니다. 가장 큰 마을인 미야노우라에서는 봄과 가을에 다케마이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오전 3 시 30 분에 야쿠(益救) 신사에서 안전한 순례를 기원한 다음, 차로 잇폰가하마 해변으로 가서 비쭈기나무(*Cleyera japonica*) 가지를 사용해 부정을 없애는 의식을 치룹니다. 그런 다음 대나무 통-길이 10~15cm, 직경 3~4cm 정도-에 파도로 부정을 없앤 모래사장의 모래를 채웁니다. 이 모래는 산신들에게 바치는 바다의 소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전 6 시경, 흰 햇피와 삿갓(순례자들을 등산객과 구별하고 또한 깨달음의 추구를 표현하기 위해 착용하는 일종의 제복)을 몸에 걸친 참가자는 편도 8km 인 미야노우라다케 산꼭대기로 출발하여 잇폰호주다이곤겐을 모시고 있는 동굴 속의 작은 사당을 참배합니다. 참가자는 앞서 이야기한 모래 외에 소금, 쌀, 소주 등 바다와 산의

보물과 신에게 바치는 돈을 가지고 갑니다. 참배 의식은 일반적으로 박수를 치는 등 신토식이지만 모든 참가자가 경을 소리내어 읽는 불교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 내의 신사, 또 하나의 참배 장소

야쿠(益救) 신사는 1,000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야쿠시마 섬 신사의 본산으로서 섬 신사의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미야노우라 마을 내에 있기 때문에 산꼭대기의 사당에 비해 참배하기 쉬운 곳입니다. 야쿠(益救) 신사는 잇폰호주다이곤젠이라고도 불리는 히코호호데미노미코토를 비롯하여 산과 바다의 일곱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산기슭에 있어서 순례 때뿐만 아니라 섬 주민들이 연중 산신들에게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선달 그믐날의 축제 때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을 상징하는 큰북 연주가 열립니다. 12 월 31 일에는 미야노우라다케 산에서 선한 산신이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서 악령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악한 신이 방해를 합니다. 경내에서 휘두르는 횃불은 어떤 악령도 인간에게서 없애 정화할 수 있는 선한 신의 승리를 상징합니다.